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0 전 국 (080)064-1300  
 0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적 동년  
 ● 재배하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99년 원력물자

20년 도보수행 원공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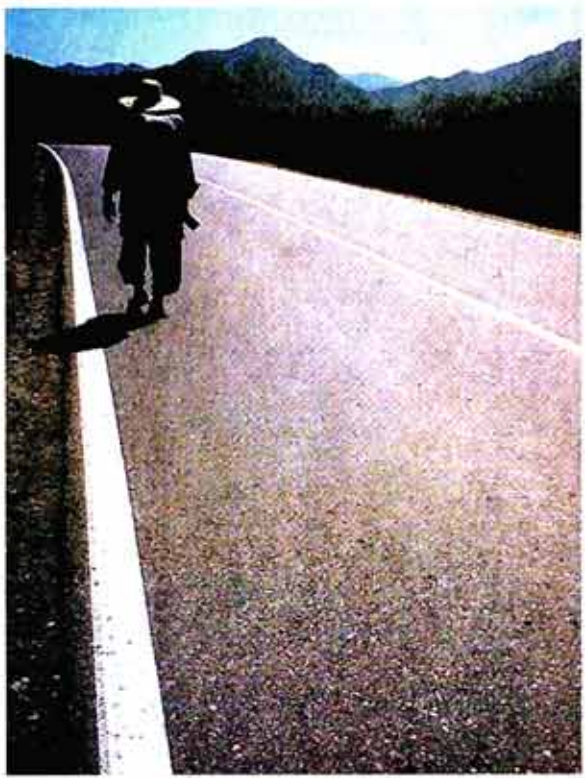
## 통일기원 백두대간 걷기정진

하루 1백리씩  
통일기원 안고  
방방곡곡  
걷고 또 걷고

"부처님께서도 45년동안 참없이 걸으시며 전교하셨습니다. 좌불(座佛)이 아니라 행불(行佛)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동안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원공스님은 이번 순례 기도회와 원력으로 걸으며 수행하는 원공스님. 스님은 재해에도 123일에 걸친 백두대간 걷기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올 3월8일 지리산을 출발해 7월8일 백두산에서 회향 하겠다고 밝힌 스님은 "오는 2000년에는 꼭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순례 기도를 시작한다고 간절히 원력을 내비친다."  
 이번 일정은 지리산, 속리산, 태백산, 대관령, 진부령을 거쳐 설악산에서 돌아오는 뒤 중국을 통해 백두산 정상에서 회향할 계획이다. 또 지역 불자들이 함께 도라지 심기와 오물수거 등 환경운동도 벌인다.  
 스님이 국토 순례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



한 것은 79년 부터. 도봉산 전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의 면벽정진을 마친 뒤 한해도 거름없이 통일외의 열원을 발길에 달고 국토 순례를 통한 수행 정진을 거듭해 왔다.  
 "155마일 휴전선 완주순례" '통일 기원, 180일 국토 순례' '한민족 동질성 회복기원 108일 도보 순례' '이산가족 고향 자유왕래 기원 220일 순례' 등 다양한 주제로 순례를 계속해온 스님이 그동안 당시 정진한 거리를 합치면 실크로스를 3번 이상 횡단한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이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항상 '걸으며 기도하는 스님', '도라지 스님', '통일 기도하는 스님' 등 각종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분단으로 겪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의 완인을 해결하기 위해 발원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한다.  
 올해로 걷기 순례 20년을 맞는 스님은 보통 하루 1백리를 걷는다. 국토를 지그재그로 남하한 뒤 다시 북상하는가 하면 휴전선 철책을 따라 다니기도 하는 등 험난한 고행의 연속이다. 순례 초기에는 남부한 옷차림과 큰 지도를 가지고 다닌 탓에 간첩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연탄 가스 중독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했다.  
 걷는 것이 지루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원공스님은 길 도중에서 만나는 선지식들 덕분에 피곤한 줄 모른다고 답한다. 오가며 만나는 중생들에게 배우는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 우리 국토의 흙을 밟아 보면 불수족 산하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만 간다는 스님이 5년 전부터 전 국토에 '도라지 심기' 운동까지 펼치는 이유도 바로 산하에 대한 사랑때문이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인 도라지는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며 또 보라색·흰색의 꽃은 온 천지를 아름답게 물들여 준다고 극찬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올해로 걷기수행 20년을 맞는 원공스님은 오는 3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통일기원 백두대간 걷기 기도를 계획하고 있다.

99년 원력물자

죽비깨고 경구 새기는 정중화씨

## 죽비는 중생에게 바른길 안내

3월 10~16일  
'죽비전' 열어  
수익금 생기면  
장학금으로 보시

새해 아침, 여는 때와 같이 아침예불을 마치고 난 정중화씨(67)는 예의없이 줄과 사포를 들고 나무대 앞에 앉는다. 사포로 잘 매만진 죽비에 불경경구를 조심스럽게 새기기 시작한다.  
 절집에서 입선과 방상을 알리거나 예불, 입정, 참회, 공양, 창법에 이르기까지 요긴하게 쓰이는 죽비, 죽비 소리에 맞춰 대중들은 행동을 통일하며 좌선할 때 어깨를 살짝 쳐서 들음을 뜻하는 것도 죽비의 몫이다. 정중화씨가 죽비를 만든지는 3년여. 손으로 일일이 만들다보니 40~50cm 가량 되는 죽비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린다. 그동안 만든 죽비가 3백여개. 죽비만드는 과정은 단조로움의 연속이지만 정중화씨는 곧잘 죽비 만드는 삼매에 빠진 듯하다. 주말이면 부인 묘광명 보살과 함께 전국 사찰순례를 다니면서 산에서 죽은 나무 등걸이나 공사로 인해 잘라 내버려진 나무



토막이나 줄기를 소중히 모아 왔다. 처음에는 작은 호신진언이나 웃을 간들이 남에게 보시하다가 죽비를 만들게 됐다. '나무아이타볼' '올마니반베' '일제유심조' '제행무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각종 경구와 연꽃문양까지 넣어 잘 만들어진 죽비는 탄탄하고 아름다워 보는 사람마다 가지기를 원해, 스님들에게 보시하거나 사찰에 보낸 것만도 100여개가 넘는다.  
 사람보다 더 큰, 주정지처럼 보이는 장군죽비가 있고 핸드백속에 들어갈만한 미니 죽비도 있다. '죽비거사' 정중화씨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조계사일 웅천전리에서 죽비전시회를 갖는다. "죽었거나 버려졌던 나무가 죽비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고 IMF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또 나무모양과 결을 그대로 살린 점에 주목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죽비전의 수익금이 생기기 일부는 공부하는 스님들의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일을 하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완간공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정중화씨는 퇴직후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싶어 강남 등 은사 거사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도 열심히 했다. 거사대학에 다닐때도 누구보다 먼저 절에 와서 백팔배를 하고 같이 불공공부하는 도반들 반석부터 앉기 좋게 놓아주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불만 내면 전국 사찰행배를 다닌다. 버려진 나무등걸을 주어오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부인과 함께 양평 법왕정사에서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한다.  
 "정중화씨 때 쓰이는 법구가 죽비 아님니까. 죽비를 사용하는 뜻만 잘 새겨도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정중화씨는 죽비, 호신진언, 웃걸이, 웃 등 모두 3천개 보시의 원력을 세워두고 있다.  
 이경숙 기자(jisee@buddhapia.com)



◇죽비거사 정중화씨가 만든 죽비들. 나무모양과 결을 그대로 살리고 부처님 말씀을 새겼다.

99년 원력물자

보리수묘목 나눠주는 박우재씨

## 깨달음의 나무 10만그루 보급

보리수나무가  
한국토양에서  
잘 자랄수 있게  
안착제 개발

부처님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나무가 한반도 금수강산에 뿌리내리게 됐다.  
 불교나무 보리수를 네팔에서 직접 들여와 전국 사찰과 각 가정에 보급하려는 박우재씨(32세)의 웅골한 원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리수를 아끼고 기르며 보급하려는 불자 20여명과 '1세대 보리수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5년생 이상인 보리수 묘목 10만그루를 경기도 광주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박씨는 99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운동을 벌인다. 희망하는 사찰에는 무료로 이식해 준다. 그래서 전국 사찰에 적어도 보리수가 무조건 자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또 보리수를 가정에서 기르고 싶은 불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그가 이 불사를 시작한 것은 산악인으로 네팔과 인연이되면서 그곳에서 불교를 만나



고 보리수나무의 중요성에 눈뜨면서라고. 89년 히말라야 원정 이후 10여년을 매년 5개월이 상 네팔에서 산 박씨. 그는 아직 미혼으로 '만비하루루'라는 네팔 이름도 있고 그곳에 집도 있다.  
 그는 이 보리수 보급운동을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시키려고 한다. 겨울방학 기간에 부처님님 네팔을 직접 찾아가 부처님 성지와 보리수를 견학하고 트레킹까지 하는 5박6일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왕복 비행기요금을 실비 150,000원을 예산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성지에서 직접 부처님 숭배를 느끼고, 보리수를 통해 생명과 지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트레킹으로 체력도 단련시킨다는 것이 이번 행사를 하려는 길은 뜻이다. 특히 보리수는 사람이 죽으면 청소년 단계 때처럼 새 순이 돋을 때가 가장 보기좋기 때문이

다.  
 "네팔 불비나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것과 현재에서 많은 스님들을 만나면서 보리수가 한국에 널리 심어져야 한다고 원력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가 한국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착제까지 개발했습니다."  
 난(蘭)처럼 4개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보리수는 수명이 보통 1500년이라는 장생식물(長生植物).  
 박씨는 묘목을 분양하면서 기르는 방법까지 직접 전수해 준다. 보리수는 보통 모래나 흙에 재배하는데 다만, 풀주는 주기가 다르다는 것. 일반 흙에서 자라는 보리수는 1주일일에 1회 물을 주지만, 모래에서는 2~3일에 1회씩 더 자주 주어야 한다. 기후상 1~2월에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주의사항.  
 네팔에서 온 보리수묘목들은 박우재씨의 원력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한국에 뿌리내릴 저항력을 기르며 새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pia.com)



◇네팔에서 들여온 보리수나무를 돌보고 있는 박우재씨.